

2015년 11월중 부산지역 경제 동향

개 황

- 11월중 부산지역 경제는 내수 부문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, 수출 부문은 저유가, 중국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부진 지속
 - 업종별로 보면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업종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, 전자부품용 코팅 페인트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주 확대 등으로 업황 호전. 기타 운송장비 업종은 지역 조선소의 선박 건조 증가(벌크선, 컨테이너선, 가스 및 화학운반선)에 따라 산업활동이 회복되고 있는 반면, 1차금속 업종은 중국산 철강재 수입 지속적인 증가, 국가 간 수입 규제 강화, 단가 하락 등으로 업황 부진을 보임
 - 부문별로 보면, 수출은 지역의 핵심 교역국인 중국, 일본 시장이 각각 중국 경제성장 둔화, 엔화 약세 지속 등으로 부진한 가운데, 내수 부문은 자동차, 조선 등 지역 주요 제조업의 업황 회복에 따라 산업생산이 증가하였으며, 소비 부문 역시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지속으로 회복 조짐을 나타냄

- 11월중 부산경제의 부문별 동향
 - 산업활동은 생산, 출하, 재고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3.5%, 3.6%, 10.9% 증가
 - 수출은 12억2천3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.7% 감소, 수입은 10억7천7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.6% 감소
 - 부산항 물동량 처리 실적
 - 컨테이너 수송 실적은 1,532,560TEU로 전년동월대비 3.3% 감소,
 - 화물 처리 실적은 28,416,498톤으로 전년동월대비 0.5% 감소
 - 중소기업 정상조업률은 84.3%로 전년동월대비 1.1%p 하락
 - 신설법인은 414개체로 전년동월대비 8.1% 증가
 - 고용률은 56.4%로 전년동월대비 0.4%p 하락, 실업률은 3.5%로 전년동월대비 0.2%p 하락
 - 건축허가면적은 145만3천㎡로 전년동월대비 241.1% 증가, 건축착공면적은 44만9천㎡로 전년동월대비 81.8% 증가
 - 소비자물가지수는 110.83(2010=100)로 전년동월대비 1.0% 상승

- 각종 대내외여건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특히, 지역 주요 시장인 중국의 경제둔화,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, 국내 가계부채 심화 등의 경제여건은 지역 경제에 회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. 이에따라, 이들 대내외 악조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시장 개척, 유동성 공급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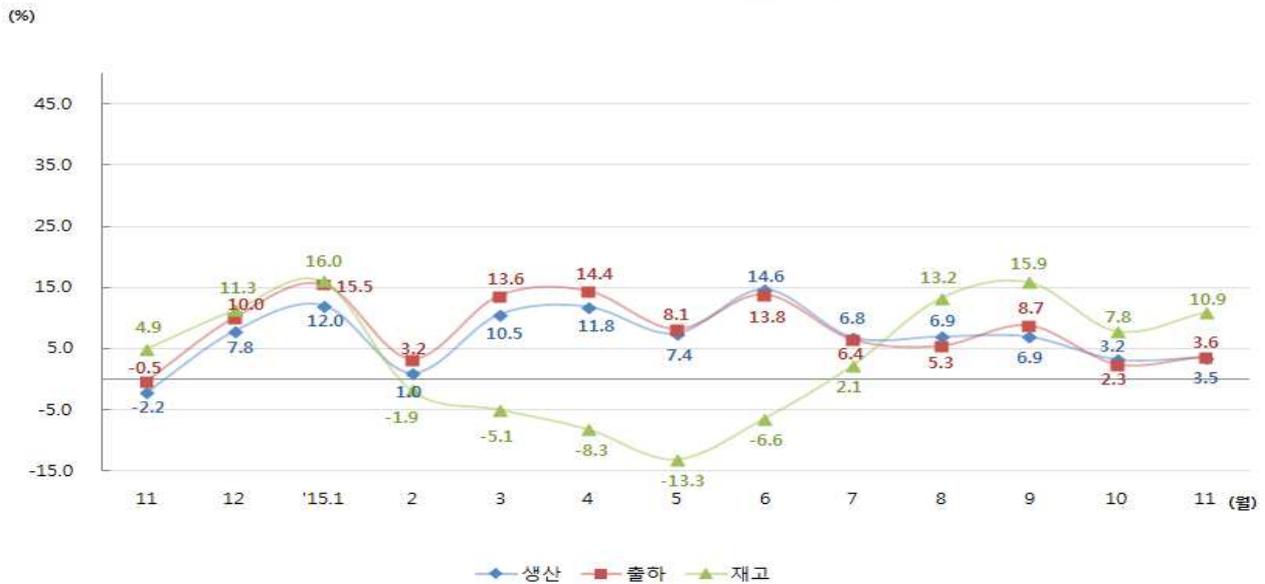
1. 산업활동

□ 11월중 부산지역 산업활동은 생산, 출하, 재고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3.5%, 3.6%, 10.9% 증가

○ 업종별로는, '화학물질 및 화학제품', '기타 운송장비' 등의 업종에서 산업활동이 회복을 보인 반면, '1차금속', '전기장비' 업종은 산업활동 부진

-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업종은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 및 수익성 개선, 전자부품용 코팅 페인트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주 확대 등으로 산업활동 활발
- 기타 운송장비 업종은 지역 조선소의 선박 건조 증가(벌크선, 컨테이너선, 가스 및 화학 운반선)에 따라 산업활동 회복
- 반면, 1차금속 업종은 내수 부문의 중국산 철강재 수입 지속적인 증가 및 전방산업 경기 부진, 수출 부문의 국가 간 수입 규제 강화, 단가 하락 등으로 산업활동 부진

부산지역 산업활동 동향 추이(전년동월비, 잠정치)



【 산업활동 증감내역(전년동월대비) 】

구 분	생 산(3.5%)	출 하(3.6%)	재 고(10.9%)
증 가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22.0%), 기타 운송장비(16.5%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(15.9%)	기타 운송장비(17.5%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(16.6%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13.2%)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(395.2%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1.4%), 전기장비(1.0%)
감 소	전기장비(-22.9%), 가죽, 가방 및 신발(-13.5%), 1차금속(-5.5%)	전기장비(-22.5%), 가죽, 가방 및 신발(-20.4%), 1차금속(-1.2%)	음료(-22.8%), 1차금속(-11.2%)

2. 무역

가. 부산지역 수출입

- 11월중 수출실적 : 12억2천3백만 달러 (전년동월대비 4.7% 감소)
- 11월중 수입실적 : 10억7천7백만 달러 (전년동월대비 14.6% 감소)
- 11월중 무역수지 : 1억4천6백만 달러 흑자

- 품목별로는 자동차(3.9%), 자동차부품(2.4%)의 수출 증가로 수송기계(3.1%)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반면, 철강제품(-16.9%), 수산물(-23.5%),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(-7.5%) 등 주요 품목은 수출국 경기 둔화,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수출 부진
- 국가별로는, 중국, 일본 등 주요 교역국 수출이 각각 24.9%, 2.8% 감소하였고, 신흥국 (인도, 러시아, 브라질 등) 시장 수출 역시 현지 경제 둔화로 부진. 반면, 대 미국 수출은 현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21.3% 상승



【 부산의 주요 수출국별 수출 동향(전년동월대비) 】

구분	비중	증감률	내용 (수출금액 기준)
미국	27.6%	21.3%	수송기계(41.4%), 철강제품(-37.1%), 기계요소공구및금형(12.6%)
중국	13.6%	-24.9%	수송기계(-46.0%), 철강제품(-23.3%), 기계요소공구및금형(-25.3%)
일본	8.9%	-2.8%	기초산업기계(181.9%), 철강제품(-33.2%), 수산물(-30.9%)

[전국 수출입]

- 11월중 전국 수출실적 : 443억8천4백만 달러 (전년동월대비 4.8% 감소)
- 11월중 전국 수입실적 : 340억6천만 달러 (전년동월대비 17.6% 감소)
- 11월중 전국 무역수지 : 103억2천4백만 달러 흑자

【 부산의 수출입실적 전국비중 추이 】

구 분	2013년	2014년	2015.11월(당월)	2015.11월(누계)
수 출	2.4%	2.6%	2.8%	2.9%
수 입	2.6%	2.8%	3.2%	3.3%

나. 항만물동량

- 11월중 컨테이너 수송 실적 : 1,532,560TEU(전년동월대비 3.3% 감소)
 - 세부항목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, 수입(-6.9%), 수출(-5.7%), 수입환적(-2.0%), 수출환적(1.1%)
 - 11월중 부산지역 컨테이너 수송 실적 전국비중 : 74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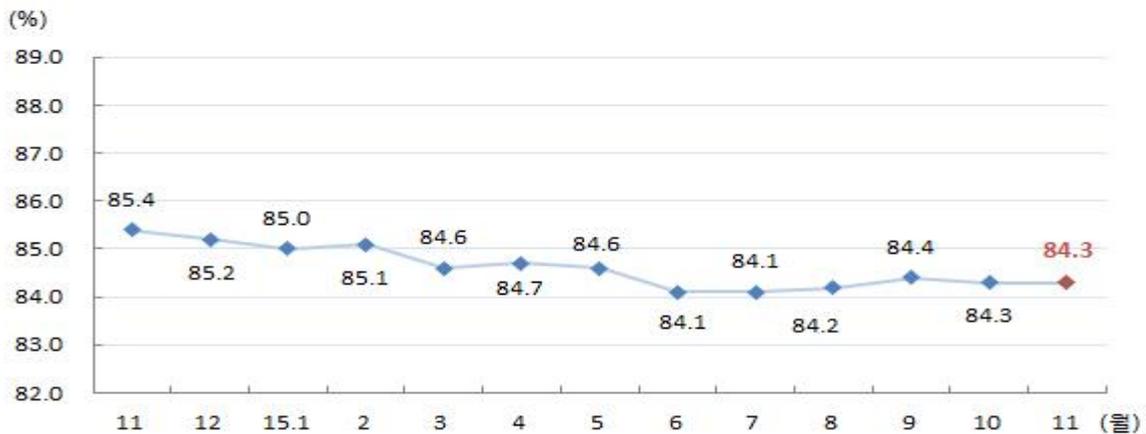
- 11월중 화물 처리 실적 : 28,416,498톤(전년동월대비 0.5% 감소)
 - 세부항목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, 국적선(-5.4%), 외국선(-0.2%), 연안선(8.5%)
 - 11월중 부산지역 화물 처리 실적 전국비중 : 24.3%

3. 중소기업 조업상황

□ 11월중 부산지역 중소기업 정상조업률 : 84.3% (전년동월대비 1.1%p 하락)

- 정상조업 업체비율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영향으로 소비부문은 일부 개선된 흐름을 보였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속, 미국 금리인상 우려 등의 대외 위험요인으로 수출성장세가 둔화되며 지역 내 주력업종의 부진이 지속, 전년 동월대비 하락.

월별 정상조업체 비율 변동 추이



- 정상조업 업체비율이 80% 이상을 보인 업종은 연식품, 선박수리, 염색, 조선기자재, 자동차부품, 기계, 가구, 니트 8개 업종이며 인쇄, 공예, 비철금속, 직물, 플라스틱 5개 업종은 80% 미만으로 부진

【 업종별 정상조업률 】

구 분	업 종
호 조	연식품(100.0%), 선박수리(94.4%), 염색(92.9%), 조선기자재(92.2%), 자동차부품(91.8%), 기계(90.8%), 가구(87.5%), 니트(84.6%)
부 진	인쇄(64.7%), 공예(64.2%), 비철금속(62.1%), 직물(60.9%), 플라스틱(53.3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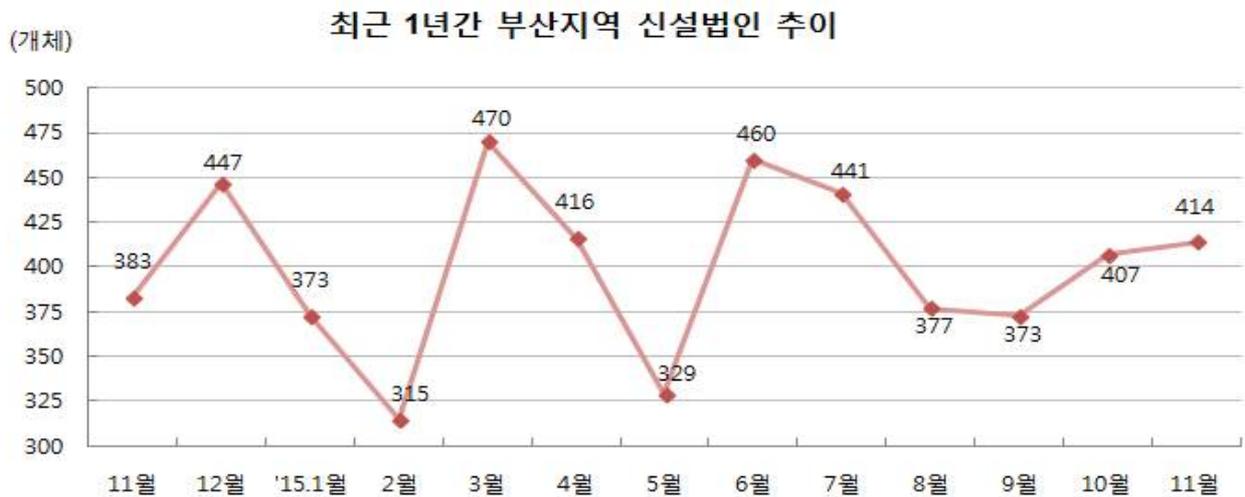
- 조사대상 1,486개체 중 정상조업 업체는 1,252개체, 조업단축업체는 전체의 14.3%인 213개체, 휴·폐업 업체는 21개체(1.4%)임

4. 신설법인

□ 11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수 : 414개체 (전년동월대비 8.1% 증가)

- 부산지역 신설법인은 신흥국 경제 둔화, 원화강세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,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*에 따른 민간 소비 회복세,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8.1% 증가

* 코리아그랜드세일(8월),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(10월), K-세일(11월), 개별소비세 인하 등



- 업종별로는 유통업이 130개체(31.4%)로 가장 많았고, 이어, 부동산 및 장비 임대업·서비스업 126개체(30.4%), 제조업 54개체(13.0%), 건설업 53개체(12.8%), 운수업 17개체(4.1%), 정보통신업 15개체(3.6%) 등의 순
- 자본금 규모별로는 5천만원 이하가 292개체(70.5%)로 가장 많았고, 이어, 1억원 이상~2억원 미만 66개체(15.9%), 3억원 이상 27개체(6.5%), 2억원 이상~3억원 미만 19개체(4.6%), 5천만원 초과~1억원 미만 10개체(2.4%) 순
-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59개체(14.3%)로 가장 많았고, 이어, 부산진구 55개체(13.3%), 강서구 53개체(12.8%), 연제구 33개체(8.0%), 동래구 30개체(7.2%), 사상구 29개체(7.0%), 중구 23개체(5.6%) 등의 순이었으며, 영도구 신설 법인은 10개체(2.4%)에 그쳐 가장 적었음

5. 고용

- 11월 고용률 : 56.4% (전년동월대비 0.4%p 하락, 전월대비 0.1%p 상승)
- 11월 실업률 : 3.5% (전년동월대비 0.2%p 하락, 전월대비 0.2%p 상승)



- 11월 경제활동참가율 : 58.5% (전년동월대비 0.5%p 하락, 전월대비 0.3%p 상승)
 - 15세이상인구(노동가능인구)는 2,96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(0.1%) 증가했으며, 경제활동인구는 1,73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명(-0.7%) 감소. 비경제활동인구는 1,23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천명(1.4%) 증가

□ 11월 취업 동향

- 취업자는 1,6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명(-0.9%) 감소
- 산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은 26천명(9.9%),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 1천명(0.2%) 증가한 반면,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37천명(-2.6%)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 21천명(-8.3%)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및 기타 16천명(-2.7%) 감소
- 고용률은 56.4%로 전년동월대비 0.4%p 감소

□ 11월 실업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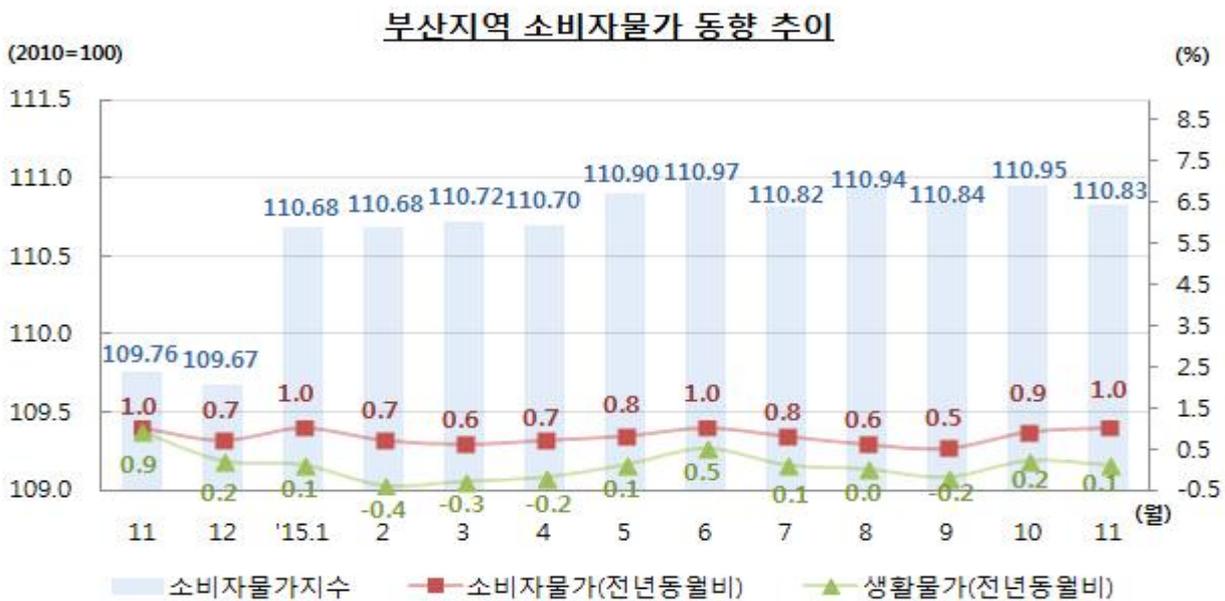
- 실업자는 6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(-6.6%) 감소
- 실업률은 3.5%로 전년동월대비 0.2%p 감소

6. 건축

- 11월중 건축허가면적 : 145만3천㎡ (전년동월대비 241.1% 증가)
 - 전년동월대비 상업용(-11.4%)은 감소한 반면, 주거용(1,242.2%), 공업용(60.6%), 문교사회용(2.3%) 부문은 증가
- 11월중 건축착공면적 : 44만9천㎡ (전년동월대비 81.8% 증가)
 - 전년동월대비 문교사회용(240.4%), 주거용(86.1%), 상업용(29.7%), 공업용(12.4%) 등 전 부문에서 증가

7. 물가

- 11월 소비자물가지수 : 110.83(2010=100)로 전년동월대비 1.0% 상승
 - 주류 및 담배(52.9%),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(3.1%), 음식 및 숙박(2.2%), 교육(1.9%), 보건(1.6%) 등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임



- 품목성질별로는, 전년동월대비 상품과 서비스는 각각 0.2%, 1.6% 상승
- 생활물가지수는 109.14(2010=100)로 전년동월대비 0.1% 상승
- *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2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

주요 경제지표 추이

(전년동월(동기)비, %)

		부 산							전 국						
		2014			2015				2014			2015			
		11월	3/4	연간	9월	10월	11월	3/4	11월	3/4	연간	9월	10월	11월	3/4
산업 활동	생 산	-2.2	0.3	-0.5	6.9	3.2	3.5	6.6	-3.5	1.2	0.0	2.8	1.7	-0.3	-0.3
	출 하	-0.5	1.2	0.0	8.7	2.3	3.6	6.6	-2.0	0.3	-0.2	4.1	2.8	-1.0	0.8
	재 고	4.9	5.1	11.7	15.9	7.8	10.9	15.9	0.5	5.2	-2.9	7.6	5.1	6.2	9.8
대외 거래	수 출	10.7	16.2	10.9	0.2	-13.9	-4.7	-0.7	-2.7	3.6	2.4	-8.5	-16.0	-4.8	-9.5
	수 입	13.5	17.7	10.6	-21.0	-7.9	-14.6	-11.9	-4.1	5.4	1.9	-21.8	-16.6	-17.6	-18.4
해운	컨테이너 실 적	6.5	6.8	5.6	5.1	1.5	-3.3	3.3	6.8	6.8	5.6	4.5	1.5	-2.2	2.0
	항 만 물 동 량	4.5	7.4	6.7	5.5	-2.2	-0.5	3.3	3.8	3.7	4.2	3.6	-0.3	-2.6	1.8
물가	소 비 자 물 가	1.0	1.4	1.3	0.5	0.9	1.0	0.7	1.0	1.4	1.3	0.6	0.9	1.0	0.7
	생활물가	0.9	1.0	0.9	-0.2	0.2	0.1	-0.1	0.7	0.9	0.8	-0.2	0.1	0.1	-0.1
소비	대형소매점 판 매	-4.6	-1.5	0.4	5.2	5.5	1.7	-2.0	-2.6	0.7	1.3	8.5	7.9	3.2	0.2
	백 화 점 판 매	-9.5	1.3	-2.8	0.5	7.6	0.6	-5.1	-9.6	0.5	-1.9	4.9	11.5	3.5	0.8
건설 투자	건축허가 면 적	0.6	14.6	-11.6	33.6	18.4	241.4	81.8
고용	고 용 률	56.8	57.4	56.4	56.1	56.3	56.4	56.0	60.8	60.9	60.2	60.9	60.9	60.8	60.9
	실 업 률	3.7	3.5	3.8	2.6	3.3	3.5	3.4	3.1	3.3	3.5	3.2	3.1	3.1	3.4
기업 신설	신설법인수	383	1,131	4,608	373	407	414	1,191
조업 상황	정상조업체 비율	85.4	85.3	85.6	84.4	84.3	84.3	84.2